

목포시, 의료계 2차 집단휴진에 진료공백 최소화 만전

내일까지 의료계 2차 휴진 대비, 비상진료상황반 24시간 운영

응급6개소·병원급 29개소·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 문열어

목포시는 26일 예정된 의사협회 2차 집단휴진에 대비해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26일부터 28일까지 24시간 비상진료상황반을 운영하고 정상운영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등 진료공

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의료계와 협의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의료기

관 6개소의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29개소, 의원급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21개소가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목포시의사회에 따르면 2차 총파업에 회원들에게 자율참여토록 하여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진료 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2차 집단휴진에도 시민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의료기관 사정으로 진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나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목포시보건소(270-8935~8936)로

의료기관 진료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란다."

한편, 시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1차 집단휴진에도 비상진료상황반을 운영하고, 지역의료계와 협의해 대부분의 병원이 정상 운영토록 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 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함평경찰, '교통사고 잦은 곳' 현장 합동점검

교통공단 협업...현장점검 통한 사고요인행위 제거



함평경찰서(서장 박종열)는 지난 24일, 국도24호선내 교통사고

가 빈발하고 있는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소재 내비골 조향앞 노상에서 도로교통공단(시설팀 과장 이성만)과 지역경찰 합동으로 사고현장을 점검하고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였다.

이날, 합동점검은 사고현장이 커브길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도로와 달리 특별한 사고요인을 발견할 수가 없어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적 자문요청을 하여 점검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사고구간은 2019.4월 착공~2025년까지(6개년) 2차로 선

형 개선공사가 진행중으로 공사완공시까지 지체할 수 없이 교통사고가 잦아 1차적으로 사고요인행위를 찾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점검결과와 도로상 기하학적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고예방책으로 과속단속부스 이동배치·좌우굽은도로 및 속도제한표지판 설치·이적식 미끄럼방지포장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박종열 서장은 "동일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에 대해 일제점검을 통한 교통공단 기술자문 및 시설물 보완 등 맞춤형 대응책 강구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무안군, 거리두기 2단계 실천 기관

34곳 사회단체장 긴급 간담회 개최

무안군은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산 군수, 김대현 의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종교단체 등 관내 34개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천 기관·사회단체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고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지역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다.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들은 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고 마스크 의무 착용,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등 거리두기 2단계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산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천으로 일상생활과 생업 활동에 불편이 있을 것을 알고 있지만 감염병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격상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나산이 지역복지사업의 모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관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함평군 나산면, 민·관 협력사업 '착한주택' 현판식 개최

함평군 나산면(면장 이경연)은 26일 월봉리 월평마을에서 '나눔을 통한 착한주택'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전국으로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기념식 없이 기념촬영만 한 채 마무리됐다.

'나눔을 통한 착한 주택' 사업은 나산면이 나산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사업에는 두 기관?단체를 포함해 나산면 우리동네 복지동대가 참여했으며 특히 복지동대는 주택수리, 토목, 전기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사업 진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들은 올해 총 사업비 1천650

만 원을 투입해 지역취약계층의 노후 주택을(1개소) 약50㎡ 규모

의 주택으로 신축했다. 사업비 전액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950만원)와 마을주민(700만원) 등이 후원한 금액으로 채워졌다.

이경연 나산면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이웃을 위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주시는 모든

영암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작가팀 공모

내달 8일까지...기찬랜드 일원 조형물 등 공공미술 설치

영암군은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추진을 위한 작가팀을 오는 9월 8일까지 공모한다

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천500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공

공미술 프로젝트이며 영암군은 총 4억원 규모로 관광지인 기찬랜드 일원에 조형물 등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미술가 등이 37명 이상의 작가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장소에 맞는 공공미술 작

품 설치 등의 제안서를 응모하면 1개팀을 선정하여 내년 2월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특색있는 예술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예술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코로나19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

신안군에서는 전남도내 8월 17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유관기관 근무자가 코로나19 감염증 양성으로 의심되었다가 최종적 음성으로 판정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신안군도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8월 24일 관내 유관기관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신안군,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목포소방

서, 전남남도 신안교육지원청, 농협목포신안지사, 신안군수협, 신안군산림조합, KT 목포법인지사, 육군 제8332부대 11대대 등 10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신안군은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더불어 전남도내 코로나19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관내 주요기관 직원들이 출근 수범하여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함으로써 해양관광 명소인 청정지역 신안을 지키는데 협조를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